

광주 전남 지역경제의 디딤돌 미니 클러스터 거침없는 성장

LED·조선 등 총 10개 분야 매출·수출·고용 급신장

광주·전남 미니 클러스터(Mini Cluster·이하 MC)들이 글로벌 불황에도 중단없는 성장을 이취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본부장 강달순)에 따르면 광주 첨단·평동산단과 전남 대불산단 내에 LED·광통신·조선 등 총 10개 분야의 MC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광주는 LED·광응용·광통신·전자부품·정밀금형·산업기계 등 6개 MC가 지난 2005년 전국 첫 시범단지로 선정돼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기술개발사업 효율성 평가(2009년 4월~2010년 3월)에서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합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전국 1위

를 차지하는 등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MC에 참여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회원이 2005년 196개였던 것이 2006년 229곳, 2007년 254곳, 2008년 277곳, 2009년 298곳으로 최근 5년 사이에 102곳(52%)이나 늘었다. 해마다 10%이상 성장한 셈이다.

총 매출도 2005년 1조1878억원에서 매년 15%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 시대를 열었다. 수출액도 지난해 6000만달러로 5년 사이에 8.4배, 고용자 수도 2005년 4905명에서 지난해 8043명으로 3138명(63.9%)이나 늘어났다. 5년 전, 20억원에 불과했던 연구개발(R&D) 투자액도 2006년 31억원,

2007년 59억원, 2008년 425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542억원으로 성장했다.

전남은 거점단지인 대불산단에 해양레저·조선·조선부품·해양에너지 등 4개 분야의 MC를 구축, 2008년부터 운영 중이다. 전남은 지난해 회원 수 172명, 총매출 2조2145억원, 수출액 7억5180억 달러로 2008년보다 각각 13.2%, 15.5%, 17.5% 성장했다.

손성운 호남권본부 기획총괄팀장은 "미니 클러스터는 산·학·연·관이 한 곳에서 협력체계를 구축, 특화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광주·군산의 자동차, 광주·익산의 광산업 등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여름 유행 수영복

20일 롯데백화점 안산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변에서 유행할 수영복을 감상할 수 있는 '핫 서머 비치웨어' 패션쇼를 열었다.

/*연환뉴스

중소상인들, SSM공세 반발 확산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공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살리기광주네트워크(이하 광주네트워크)는 "롯데쇼핑이 롯데슈퍼를 가맹점 형태로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SSM 개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입점 철퇴 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네트워크는 21일 사업조정신청을 내고 22일 오후 2시에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 롯데슈퍼센터 앞에서 '대기업 SSM 입점 저지 시민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사업조정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광주시로 당일 이관될 전망이다.

광주네트워크는 또 "지난해 8월 롯데슈퍼 수완점 입점이 여론에 밀려 무산된 후 가맹점 형태로 다시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며 "SSM 진출에 대해 광주시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재 광주네트워크 위원장은 "지역 사회 반대 여론에도 롯데가 입점을 강행한다면 동네상인들과 함께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은미기자 emlee@

전남지역 대학 벤처 동아리 '창업 요람'

전남지역 대학 벤처동아리가 역대 매출을 올리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신기술 예비창업자로 선정되는 등 대학생 창업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대학 벤처동아리 운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동아리로 창업에 성공한 동아리는 14곳에 이른다. 이들 동아리의 연간 매출실적은 수천만원에서 최대 4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목포대 'EBRI(www.ebri-day.com)'는 2년 연속 연매출 4억원을 올려 최고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또 전통음식을 응용해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도립대 '생활다기제작벤처'와 기능성 패션의류를 개발한 목포대 '빼어날 쉘'도 3000만원 가량의 연매출 실적을 올렸다.

특히 전남대 ROB(자동화시스템), 동신대 포비아(황균 콘택트렌즈)는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연구개발 실적을 인정받아 중기청 신기술 예비창업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성과에 따라 올해도 우수 동아리를 선발해 모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창업프로젝트에도 21억원을 투입해 200여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700선대 줄다리기 장세 IT 등 실적 관심 가져볼 만

주간 증시 포커스

코스피지수가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유로화가 반등한데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난 덕분이다. 아직까지 남유럽 위기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 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그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계를 유지하되, 최근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장세에서 예전보다 변동성이 축소됨에 따라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약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분위기가 있다.

또 시장의 관심이 경기회복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번주도 미국 등에서 발표되는 경기 지표의 결과에 따라 지수 등락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주는 FOMC(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다. 금리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의 관심은 성명서 문구 변화에 쏠려 있다. 현재로서는 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문구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경기회복에 대한 언급이 긍정적이면 추가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번주 증시도 코스피지수 1,700선을 중심으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주초 일정 수준의 매물 소화 과정과 소폭 지수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지수는 재차 반등을

모색하면서 전고점 탈환을 시도할 전망이다.

외국인 매수가 6일 연속 지속된 것은 4월초 이후 처음인데, 그만큼 이번 위기를 대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스피 지수는 미국이나 유럽,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주요지수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주변국에 비해 너무 크게 오른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위기 이후 경기회복 정도와 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제지나 석유화학 업종 등의 상승은 경기회복을 노려 베팅하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목별 대응에서는 근래 아이폰 열풍의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종목을 비롯해 긍정적인 추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IT와 자동차 관련주, 경기회복에 수혜가 되는 화학이나 구조조정 수혜가 되는 대형 건설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광주 수완지구에 호반베르디움 1175가구 분양

호반건설(대표이사 최종만)이 광주 수완지구에 호반 베르디움 1175가구를 분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호반 베르디움은 전용면적 84㎡(36~38평)의 중소형으로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 13개 동이다.〈조감도〉

특히 수완지구 중심인 중앙호수공원 앞 C17-2블록에 위치해 365일 호수공원 전망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대형 합인마트·의료시설·학원 등 주변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 지역은 2008년 대규모 미분양으로 고전할 당시 초기 60% 이상의 분양률을 달성했던 곳이다. 호반 베르디움은 지난 2006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2.7m에 달하는 광폭 발코니를 적용할 수 있다. 광폭 발코니를 적용하면 전용 84㎡(36평)에 발코니 확장시 55㎡(16평)가 추가로 확장돼 실제로는 139㎡(42평형) 아파트

가 된다.

호반건설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 옛 호반리젠시빌 사옥에 '모델하우스'를 마련, 23일 오픈한다. 문의 062-383-10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이민도, 김민도, 김민도, 김민도

국제보청기

www.gjbc.com

본점 (062) 227-9940
충정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혁신점 (063) 851-2422

전북장터

전북장터

062) 576-8600

장속바다장어

장속바다장어

062) 353-1110